



KWC 2020의 여적

2020년 7월 8일 12시경, 평창동 글로리아 타운에 자리한 Korea Wine Challenge(이하 KWC)의 와인 셀러에서 약 2주간에 걸쳐 행해진 국제 와인 컴퍼티션의 최종 결과 발표가 예정되고 있다. 세계적 코로나의 위기 상황에도 KWC 2020을 무사히 치르고, 그 뒷이야기를 몇 자 적는다. 글 최훈 본지 발행인 사진 장영수



이번 제16회 KWC는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으로 번지는 코로나19의 엄중한 시기에 치러진 와인 챌린지이다. 아주 다행히 세계의 우수 와인 생산국과 국내 수입업체가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보여 600여 종(지난해 700여 종)의 참가가 있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최상의 심사위원 48명이 와인의 질을 평가하고 각기 이에 상응하는 등급을 매긴 것이다.

다시 한 번 이 기회에 KWC 심사위원(jury)은 우리나라 일류급 와인 expert 또는 소믈리에들이다. 각기 업장에서 생업으로 하는 직업이어서 더 한층 신뢰가 가는 것이다. 해외 와인 생산자가 KWC에 그들의 값진 와인을 보내는 것은 무엇보다 KWC 심사위원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보인다는 연유하는 것이다.

각 팀마다의 책임 심사위원이 각자 맡았던 최종 결선의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앞줄 테이블에 나와 블라인드 테이스팅 때 씌운 검은 천의 덮개를 벗긴다. 이내 평가받은 와인의 실체가 눈에 들어온다. 함께 지켜보던 모든 이가 약간의 흥분과 놀라움, 그리고 탄성이 나온다. 이미 예선에서 얻은 최고점을 베이스로 정해진 섹터별 트로피 와인과 10개 나라의 베스트 컨트리 와인들이 이제 전모를 드러낸 것이다. KWC를 지켜보면서 이번 최종 트로피 및 베스트 컨트리에서 볼 수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음을 여적(餘滴)으로 남긴다.

첫 번째, Best of Country 와인 가운데서 아직 우리나라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다음 1종의 와인이 있다.

· St Andrews Cabernet Sauvignon, Wakefield Taylors Family wines, Australia

두 번째, 역시 훌륭한 와인이 나는 것으로 평판이 나있는 산지의 와인이나 지속적으로 KWC에 선보이는 질 좋은 브랜드의 와인은 끝내 수상의 기회를 갖는다.

사례) The Prisoner Wine Company (California, Best USA)
 Tenute Rossetti Tino, Fantini (Toscana, Best Italy)
 La Rioja Alta S.A. Vina Arana Gran Reserva (Rioja, Best Spain)
 Chateau Puech-Haut Tete De Belier Rouge (Sud France, Best France)

세 번째, KWC에서 수상을 하게 되면서 훌륭한 와인들을 시장에 알리는 한편 수입사의 브랜드 이미지도 한 층 좋아지는 효과를 보게 된다.

· Adegas de Pegoes Syrah (Best Portugal), 수입사 나루글로벌(대표 이상봉)
 · Mission Estate Pinot Noir (Best New Zealand), 수입사 유와인(대표 노선환)
 · Bloody Merlot (Best Romania), 수입사 마이와인즈(대표 신지원)

이 기회를 통해 KWC에 와인을 참가시킨 해외 와인 생산자 그리고 국내 와인 수입사한테 다시 한 번 고마운 뜻을 전하면서 참가 와인에 대해서는 <Wine Review>가 잊지 않고 최선의 홍보 마케팅을 추구할 것이다.ㄹ